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6호 [루게 제24609호] 주체103(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71군부대의 초소들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71군부대 직속 민경초소와 군부대관하 2대대 3중대의 초소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육군상장 서홍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군부대직속 민경초소를 시찰하시였다.

코앞에 남조선괴뢰군강패무리들이 우글거리는 최전연초소에까지 몸소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뜻밖에 뵈옵게 된 군인들은 걱정의 눈물을 흘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민경초소앞에 도사리고있는 적진을 바라보시며 적정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의 최전연초소를 목숨바쳐 지키며 일단 명령이 내리면 적진을 단방에 목사발내겠다는 초소장의 결의를 대견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군인들이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적대세력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기세충천하여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전

진을 가로막기 위해 발악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이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근저에는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전연초병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뜨거운 애국심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말건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을 치르고있는 초소군인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

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조성된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연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민경초소의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면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판을 가슴깊

이 간직하고 반제, 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의 병실, 식당, 일일창고에 들리시여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기와 물고기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근무용간식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가를 물어주시면서 군인들이 하나같이 혈색이 좋고 몸이 튼튼한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시찰의 길에 오른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을 믿고 자식들을 최전연에 세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민경초소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증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2대대 3중대의 초소를 시찰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육군상장 서홍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훈련은 동부전선을 지키고있는 포병부대들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입하는 적들을 강력한 포병화력타격으로 진압할수 있게 준비되었는가를 검열하고 명포수운동의 불길속에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동부전선 최전방의 영웅고지 351고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된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 장병들의 가슴은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훈련진행계획과 방사포들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시고 지적된 화력진지를 신속히 차지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지퍼주신 명포수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이악하게 훈련해온 군부대 포병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번개같이 기동하여 전투전개를 끝내였다.

쌍안경으로 군인들의 전투동작을

주의 깊게 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력타격순차와 방법, 목표를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원수격멸의 의지로 응축되던 우리와 같은 폭음이 최전연산발들을 타고 울려 퍼지고 전장을 방불케 하

는 자욱한 포연이 영웅고지 351고지를 감싸안았다.

번개같은 섬광속에 시뻐진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날아갔다.

포탄들이 해상에 우박처럼 쏟아져내리고 물기둥들이 치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이어 솟구치는 물기둥들을 보시면서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쏘오,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하시며 대만쪽을 표시하시였다.

적들의 그 어떤 사소한 형태의 전쟁연습소동과 도발행위도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조선인민군의 결사의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전연의 화력진지들에서 올린 명중포성은 원수들에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서리찬 증오와 분노, 참을길 없는 보복일벌의 폭발이라고 하시면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의 초소들을 시찰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도표식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초소에 오니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초소를 찾아

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의 군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동대문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실, 교양실,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최전

연의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당에서 취해준 조치들이 은을 내게 하며 지휘관들은 그들에게 더 좋은 근무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초소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 장병들이 최전연을 철옹성같이 지키고있기에 우리 인민이 발편잠을 자고 최고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 장병들은 군사분계선 최전방초소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바쳐 사수하며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 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